

곡성군, 그물망 복지로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 만든다

경로당, 다기능 복합공간 활용 · 공중 목욕장 만들기

경로식당으로 양질의 무료 급식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65세 이상 인구가 34%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 곡성군이 촘촘한 노인 복지 그물망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곡성군은 경로당을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곡성군에는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조성되어 있다. 노인 인구 30명당 1개꼴로 경로당이 있는 셈이니 곡성군의 모든 노인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경로당에 소화기 비치, 고효율 냉방기 공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 사시사철 집보다 편안하고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일괄 가입해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희망기동서비스 사업을 통해 공중보건과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의료취약지 경로당을 돌며 노인

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진료팀은 혈압 및 혈당 측정을 비롯한 건강 수치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법과 계절별 건강관리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활법, 요가,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곡성군체육회와의 협업을 통해 건강생활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경로당을 벗어나도 촘촘한 그물망 복지는 계속 된다. 노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에 총 9개소의 공중 목욕장을 만들어 매주 2~3회 운영한다. 공중 목욕장은 목욕 외에도 농촌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해 운동, 건강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중목욕장이 설치되지 않은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노인들에게는 월 3회 민간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한다.

결실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해 양질의 무료급식을 제공해 건강을 챙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해주면서 노인들의 안부도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손을 잡았다. 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원 등 자원봉사자를 독거노인과 1:1로 결연을 맺어준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과 결연을 맺은 노인들에게 매주 2회 이상의 전화, 1회 이상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이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먼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입비의 90%, 차상위 계층은 80%, 일반 노인은 70%까지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한 바깥 활동 기피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선물한다.

아울러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 창출이라는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사회참여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마을환경지킴이를 비롯해 23개의 노인사회참여활동 사업이 곡성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288명의 노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시간에 따라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경제적인 소득을 올린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휴녀 심청의 고장답게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는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효행문화를 단단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등 해마다 노인들을 위한 신규 시책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며 '노인이 존경 받고 행복한 곡성'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곡성=김평희 기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 파이팅!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대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의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정책 간담회' 개최

여수시의회 정현주·이상우 의원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14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부모, 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시민의 소리를 엮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

폐성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폭력·자해 등 도전적 행동을 보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승원 전남발달장애인 센터장이 좌장을, 이상우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먼저 정현주 의원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후, 지역 장애인시설 관계자 등이 주제에 대한 의견제시에 나선다. 이어 박성미·정광지 의원은 '발달장애

인 도전적 행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현주 의원은 지난달 제194회 임시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이상우·박성미·정광지 의원과 함께 한양대 발달장애인행동발달장애센터 등 4곳을 방문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입안을 위한 벤치마킹도 가진 바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건강보험 1단계 개편...저소득층 2만원 인하 고소득층 6만원 인상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애초 계획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는 내려가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라가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단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 평균 2.1만원의 보험료가 인하됐으며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세대는 월 평균 6.6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 37만 세대가 월 평균 5.1만원이 인상됐고 피부양자 28만 세대는 월 평균 5.0만원 인상, 직장가입자 15만 세대는 월 평균 12.9만원이 인상됐다. 다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보료 수입은 감소했다.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지난 6월4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25.1%는 '매우 잘했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응답도 34.8%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59.9%였다.

보험료 징수율에서는 올해 1~6월 지역보험료 누적 징수율일 100.4%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p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누적 징수율도 99.6%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징수율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른 개편도 추진 중이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